

1. 개요

□ 일시·장소 : 2021. 6. 23(수). 14:00~16:00 / 중구 코리어나호텔 글로리아홀

□ 참석 현황 : 24명

○ (주재) 정현찬 농특위 위원장

○ (당연직 위원) 5명 중 2명 참석

* 대리참석 : 농식품부 차관,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 (위촉직 위원) 23명 중 21명 참석

* 불참(2) :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 김춘덕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2. 회의 진행순서

1) 위촉장 수여식

2) 개회

3)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논의

4) 폐회

3. 발언 요지

○ (위원장 인사말씀) 2기에서는 1기에서 시작된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의 농정의 틀을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하고, 다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야 함

○ (황○○ 위원) 2기 위원에게 농특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충분한 오리엔테이션이 우선 되었으면 함.

자료에 있는 2기 계획안은 1기의 논의를 충분히 고려하되 새롭게 구성된 2기 위원들의 논의를 충분히 거쳐서 결정되어야 하고,

1기의 미흡한 점은 본위원 중심의 운영이 잘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핵심임.

산하 위원회에서 논의 안건 진행 현황이 본위원회에게 모두 공개가 되고 공유가 되어야 함.

- (문○○ 위원) 농특위에 소비자 의견을 대변하는 더 많은 조직들이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고 그 방안을 2기에서 안건으로 논의하고 싶음.

더불어, 2기 업무추진 방향은 의결 안건이어야 함. 위원회의 분과 위원회 구성과 추진계획상의 업무 분야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농수산물식품분과위원회 경우 저한테 이름을 명명하라면 ‘먹거리소비분과’ 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었는데,

추진계획 분야를 보면 농식품 및 수산분야로 되면서 앞의 추진 방향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는 과제들이 다 실종되었음

- (정○○ 위원) 안건 내용이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본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본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차후에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농어업분과, 농어촌분과 및 농수산물식품분과에서도 수산과 어업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하고,

산하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안건이 본위원회에게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김○○ 위원) 위원 선정되었다는 메일 이후에는 뉴스레터, 토론회 이런 정도에 대한 소식만 받았고, 오늘 회의 자료를 받지 못했음. 사무국에서 회의자료 보내고 다시 문자나 전화로 확인을 하는 것이 상례임.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TF 위원의 임기가 본위원회와 맞물려야 하고 본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본위원들이 분과위 논의에 참여가 필요함.

업무추진계획도 분과위에서 작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은 문제가 있음.

추가로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TF에서의 논의 내용이 본위원

에게 공유가 필요함

- (김○○ 위원)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의 추진방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어떤 부분들은 농특위가 해야 될 것이고,

농특위 안에서도 분과를 어떻게 나누고 어떤 역할을 해서 농정의 틀 전환을 완성해 나갈 것이냐고 하는 관점이 조금 더 필요함

- (이○○ 위원) 정부·탄중위·농특위 간 탄소중립 정책이 개별 추진되어서 진행 속도 차이가 있음. 탄중위는 10월 초까지 2030년까지의 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

이에, 탄중위 정책에 농특위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농어업·농어촌분야 탄소중립안 마련에 위원회 논의를 집중 했으면 함

- (정○○ 위원) 앞으로 농특위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림

- (박○○ 위원) 논의된 안건이 정부 정책에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본회의에 정부위원들이 모두 회의 끝까지 참석해야만 함.

농지가 농민에게, 그리고 국가가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회협약을 농특위가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김치자급법 입법화를 위해서도 TF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특위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대해 본위원이 참석하지 않아도 메일 등으로 내용을 공유 했으면 좋겠음

- (김○○ 위원) 분과위원회나 TF의 회의자료 만큼이라도 본위원들과 공유가 되어야함.

농특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농업인, 어업인과 소비자단체, 그리고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될 것을 논의 의제로 정해야함

- (김○○ 위원) 위원회는 본위원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야하기에 본위원들이 자기 전문영역과 이해관계자 속에서 분과위원회에 들어가

활동하여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간 소통이 되어야함.

지금 의제들을 농특위만의 특성화된 의제로 선별해서 본위원 중심으로 서둘러서 논의를 가져가야 함

- (장○○ 위원) 지금 농촌에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인력난 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이 필요 함.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되려고 하면 우선은 농업·농촌에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고, 탄소중립도 그래야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임

- (양○○ 위원) 농특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거리나 식량안보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려면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연구하고 논의하는 그 단계는 넘었음.

이제 실천하는 것만 남았고 더 이상 논의 속에서 이론만 있는 것 보다는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제안 되어야 함

- (최○○ 위원) TF나 또 운영위원회라든지 농특위 소위원회에서 다룬 내용들을 가지고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을 본위원회는 가져왔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잘 개선되어서 농특위가 활발하게 운영 되었으면 함

- (이○○ 위원) 농협도 농업·농촌 환경 변화를 위해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농협 추진사업에 지지 부탁드립니다

- (길○○ 위원) 본위원이 분과위원회와 조금 더 호흡할 수 있는 운영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제를 같이 공감하고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한 지원활동을 본위원이 해야하기에 농특위에서 다루는 의제의 우선순위나 위계구조를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음

- (이○○ 위원) 농특위 논의 의제가 너무 많아서 본위원들이 충분히 자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함.

의제 수를 줄여서 위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고 몇 가지 한정된 주제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함

- (이○○ 위원) 농어업·농어촌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좋은 안들을 모으는 그런 지혜로운 농특위가 되었으면 함
- (오○○ 위원)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법령상 농특위는 심의 의결 기능이 아닌 협의 결과를 의결하는 구조라 문제임.
두번째는 위원장과 위원들, 분과위원들 간 임기가 엇박자가 되니까 일을 추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해소가 필요.
세번째로는 농어업정책팀과 농어촌정책팀이 행정직제 상으로는 하나로 되어 있기에 행안부와 직제 협의를 거쳐 이런 것들을 정상화 필요.
네번째는 본위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운영위원회는 본위원으로만 구성을 고려해야 함
- (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수산정책 현안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음
- (박○○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텐데 여기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참석하고 잘 관철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위원장 마무리말씀) 오늘 의견주신 것들을 반영해서 향후에 2기에서 무엇을 중점으로 해야 될지 다들어서 다음 회의 때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음

4. 결정 사항

☐ 해당사항 없음